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6일 월요일 음 7월 30일 (7월)

기상정보

대체로 흐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4℃, 낮 최고기온은 27~28℃로 전망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Island, including precipitation and wind speed.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moon phases, and astronomical data.

Table with air quality index (PM10, PM2.5) and UV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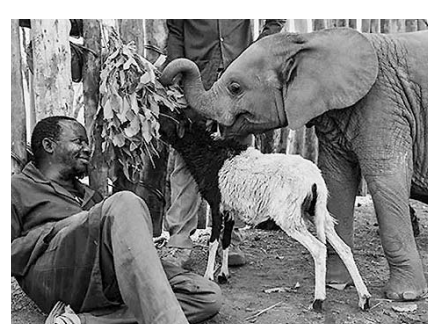
Table with air quality index (PM10, PM2.5) and UV index.

월드뉴스

고아된 코끼리... DNA검사로 어미 찾아

야생 적응이 가족 재회 관건

아프리카 부르크나파소 야생에서 무리에서 낙오된 채 발견됐던 고아 코끼리가 수년간 사육사들의 돌봄 끝에 DNA 검사로 어미 코끼리를 찾았다고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사육사의 돌봄 받는 코끼리 나니아.

'나니아'라는 이름의 이 코끼리는 지난 2017년 9월 부르크나파소 보로모 인근에서 주민들에 의해 구조됐다.

얼마 남지 않은 멸종위기 동물이다. 보로모 야생동물 보호 당국과 IFAW는 나니아를 야생으로 돌려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구조 당시 나니아는 혼자 인근 지역을 배회하고 있었고, 생후 2~3개월 정도로 밖에 되지 않았다. 국제동물복지기금(IFAW)의 지원과 보로모 주민들의 헌신으로 나니아는 건강하게 성장해 현재 4살이 됐다.

보로모 야생동물 보호 당국과 IFAW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보로모 인근 지역의 코끼리 대변을 수거해 확보한 DNA로 나니아의 어미를 찾아내는 데에도 성공했다.

아프리카 숲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와 달리 아프리카대륙 중앙의 숲 지역에 서식하는 코끼리로 개체 수가

나니아의 친모를 찾아 야생으로 돌아가면 생존 확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fax, and website details.

백록담



백금탁 제2사회부장 겸 서귀포지사장

서귀포시가 빠르게 늙어가며, 앞으로 큰 사회문제에 맞닥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연말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서귀포시의 인구는 지난 7월말 기준 18만2959명. 이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3만6197명으로 19.78%를 차지했다.

노인인구가 많은 이유는 여럿 있다. 제주시의 노인인구 비중이 14.68%로 전국평균 16.80%보다 낮다.

초고령사회 서귀포시, 남의 일 아니다

체로 보면 노인인구 비중은 전국에 비해 젊은 편이다. 하지만 유독 서귀포시에 노인인구가 많은 것은 1차산업 비중이 20.2%(제주시 17.5%, 이상은 2018년 통계청 확정치)로 높은 것과 비례한다.

게다가 각종 교육문제로부터 의료기관, 문화 향유, 공·항만 교통 인프라 등이 제주시에 집중해 있어 젊은층이 제주시를 선호하는 것도 한 이유다.

저출산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전체적 현상인 고령화에 비해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이 9월 중에 초고령사회가 된다. 서울을 포함해 7개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2015년 14.6%이던 부산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9월 말 전

체 인구 335만9334명 중 67만3356명으로 20%를 넘길 태세다.

대도시에 비해 제주도는 환경적으로 그나마 노인들이 지내는 데는 낫겠으나,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경제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현실이다.

205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38.2%로 일본 37.7%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다.

노인에 대한 촘촘한 정책 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 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우선 노인복지 예산 비중을 높이고, 연금제도의 조기 시행, 노인돌봄, 일자리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점차 늘어나는 1인 노인가구의 고독사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 대한 사례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2007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일본의 현재 노인문제는 주요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가난하게 사느니 차라리 교도소에서의 삶을 택하겠다는 이유가 많다고 한다.

서귀포시가 연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며 행정역량을 집중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내 최초로 노인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의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아울러 토탈케어, 주거환경 개선, 은빛행복설계, 안심복약, 방문 한의진료, 방문운동지도, AI 안심 돌봄 등 통합돌봄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이 같은 서귀포시의 정책은 모두 유효하다. 여기에 공공근로가 아닌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노인의 생계와 일거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협동조합 건립 등의 파부에 와 닿는 정책 실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열린마당

반야심경에서 배우는 지혜



김동한 제주도 물정책과

'전도몽상(顛倒夢想)'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글귀다. '전도'란 앞과 뒤가 바뀌었다는 뜻으로 '몽상'은 헛된 생각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전도몽상이란 뒤바뀐 꿈같은 생각을 뜻한다. 우리는 전도몽상을 멀리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전도몽상에 빠져 있다.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헛된 꿈을 꾸고 있어도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돈'이다. 돈이라는 것은 당초에 사람을 위해 만들었는데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보니 이제는 인간이 거꾸로 돈의 노예가 됐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주식이 마찬가지다. 당초에는 인간의 풍요·안전·편안을 위해 인간은 개발이라는 명명하에 환경과 자연을 파괴하며 지금의 산업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했고, 운영

투명페트병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 필요



나 의 응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지난해 2월부터 서귀포시 등 6개 지역의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시행하게 됐으며,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의 분류는 생수, 음료 페트병이 해당되고, 과일트레이, 계란 트레이, 1회용 아이스컵, 유색페트병,

막걸리병 등은 따로 배출해야 하며,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은 >내용물은 비우고 흔들어 씻기 >바깥면의 라벨 제거하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기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기이며, 유색 페트병 경우는 색소, 나일론, 철 등의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어 고품질 제품 제작에 방해되어 종전과 같이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한달에 1회 이상의 재활용데이를 운영해 읍면동의 재활용도움센터에 1kg 가져왔을 때 가연성 봉투 10ℓ 10매를 주고 있으며, 평시에는 캔, 페트 자동수거 보상제(개당 8원) 운영,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와 바르게살기운동 서귀포시협의회와 협업해 전국최초로 투명페트병 2kg을 수집해 올때는 자원봉사 1시간 인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2월 25일부터 가정으로 확대되어 시행되는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사업이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시민 실천운동으로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Gaia Bio' products, featuring '부스트 팜' and '탄생' with detailed usage instruc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amsul' products, featuring '2022년 봄 출하예정 모종 분양' and '자원종묘' with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aia Bio' products, featuring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and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with contact information.